

프로야구, 반등 이론 삼성·KT...키움은 연패 탈출 절실

‘마운드 안정’ 삼성, 최근 10경기서 8승 2패
KT는 지난주 6경기서 5승 1패 상승세 타
‘투수진 부진’ 키움, 5연패 빠지며 최하위 추락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가 이번주 상승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막 4연패에 빠졌던 삼성은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주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와의 3연전을 각각 위닝 시리즈로 장식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0경기에서 무려 8승 2패를 거뒀다.

안정된 마운드가 삼성 반등의 발판이었다. 지난주 6경기에서 삼성의 팀 평균자책점은 2.89였다. 같은 기간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토종 우완 영건 원태인이 13일 대구 한화전과 18일 사직 롯데전에 선발 등판해 각각 6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선발진을 이끌었다. 2경기에서 모두 10개씩의 삼진을 뽑아냈다.

데이비드 뷰캐넌이 15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완봉승을 달성했고, 16, 17일 롯데전 선발이었던 벤 라이블리와 백정현은 각각 6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4월 넷째 주 프로야구 일정

▲주중 3연전

KIA-LG(잠실) 두산-롯데(사직) SSG-삼성(대구) KT-NC(창원) 키움-한화(대전)

▲주말 3연전

NC-두산(잠실) 롯데-KT(수원) 삼성-KIA(광주) SSG-키움(고척) LG-한화(대전)

타선은 구자욱이 이끌었다. 구자욱은 지난주 6경기에서 타율 0.529(17타수 9안타) 1홈런 2타점에 출루율 0.667, 장타율 1.000으로 맹활약했다. 안타 9개 가운데 2루타 3개, 3루타 1개를 포함해 5개가 장타였다.

지원근도 있어 삼성의 상승세에는 한층 불이 붙을 전망이다. 부상상으로 이탈했던 토종 선발 요원 최재홍과 강타자 오재일이 복귀 준비에 박차를 가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4대0으로 완봉승을 거둔 삼성 선발투수 뷰캐넌이 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하고 있다.

삼성 SSG 랜더스와 홈 3연전을 치른 뒤 광주로 이동해 KIA 타이거즈와 대결한다.

삼성의 '끝판대장' 오승환은 KBO리그 최초 300세이브에 재도전한다. 오승환은 300세이브에 단 1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8~11일 4연패의 수렁에 빠졌던 KT도 지난주 치른 6경기에서 5승(1패)을 쓸어들리며 상승세를 탔다. KT의 반전을 이끈 것은 타선이었

다. 지난주 KT의 팀 타율은 0.337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3할을 넘겼다. 팀 OPS(출루율+장타율)도 0.855에 달했다. 지난주 6경기에서 KT는 무려 43점을 뽑았다.

베테랑 유한준이 타율 0.500(14타수 7안타) 1타점 3득점으로 견재함을 과시했고, 조용호가 타율 0.435(23타수 10안타) 7타점 4볼넷 5득점으로 공격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반등에 성공한 KT의 이번주 첫 상대는 만만치 않다. KT는 창원NC파크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2021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경기, 4회초 2사 만루 상황에서 홈런을 친 KT 박경수가 홈을 밟은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에서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는 NC 다이노스와 주중 3연전을 치른다. NC도 지난주 4승 2패를 거두는 등 기세가 대단하다. KT는 주말에 롯데와 3연전을 한다.

5연패에 빠진 키움 히어로즈는 분위기 반등이 절실하다.

키움은 지난주 6경기에서 5승 1패에 머물렀다. 투수진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 뼈아팠다. 6경기에서 키움의 팀 평균자책점은 7.06에 달했다.

지난 14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

에서 선발과 불펜이 모두 붕괴되면서 13점을 내줬고, 15일에는 외국인 에이스 에릭 요키시가 6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 16~17일 KT와의 대결에서는 불펜 부진으로 모두 역전패했다.

연패를 끊는 것이 급선무인 키움은 한화, SSG를 차례로 만난다.

한편 공동 선두를 질주 중인 NC는 KT와 주중 3연전을 한 뒤 두산 베어스와 잠실벌에서 격돌한다. 또 다른 1위 LG는 KIA, 한화와 차례로 맞붙는다.



유럽 '슈퍼리그' 창설 후폭풍 '캡틴' 손흥민, 월드컵 못 뛰나

슈퍼리그 창설로 유럽 축구계가 시끄럽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각 대륙 축구연맹이 슈퍼리그 참가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자격 박탈을 경고한 가운데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에서 뛰는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29)의 행보에도 시선이 모인다.

유럽축구연맹(UEFA)과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축구협회 등은 19일(한국시간) 유럽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클럽들은 자국 국내 경기들은 물론 유럽 대륙의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

다. 초대 회장은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맡는다.

이에 UEFA는 성명을 통해 "해당 구단들은 국내, 유럽, 세계 수준의 다른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소속 구단은 자국 대표팀을 대표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슈퍼리그 창설 움직임이 계속되면 UEFA와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축구협회, EPL, 라리가, 세리에A, FIFA 등 우리 모두는 자신들의 이익

UEFA "슈퍼리그 참가팀, 챔피언스리그 참가 자격 박탈" 경고

FIFA도 유럽슈퍼리그 창설에 부정적...월드컵 등 못 뛰 수 도

다고 경고했다.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12개 축구 클럽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탈퇴, 유럽슈퍼리그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EPL에서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과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첼시 등 6개 클럽이 가담하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개 클럽이, 이탈리아 세리에A는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AC밀란 등 3개 클럽에 참가한다.

총 12개 구단이 챔피언스리그를 떠나 슈퍼리그에 가담할 예정이면, 추후 3개 구단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15개 창립 클럽과 5개 초청팀을 포함해 총 20개 클럽이 슈퍼리그를 치른

만을 행하려는 몇몇 클럽들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FA도 지난 1월 슈퍼리그 창설과 관련해 축구계의 전통이자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컵,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토트넘의 슈퍼리그 참가는 손흥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챔피언스리그와 클럽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으며, 상화에 따라 한국 대표로 아시안컵과 월드컵 참가에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손흥민과 이적설이 제기됐던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파리생제르맹(프랑스·PSG) 등은 슈퍼리그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뉴시스

KIA 타이거즈 레전드 데이...첫번째 주인공 '김응용 전 감독'

오는 24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첫 개최

KIA타이거즈가 '타이거즈의 전설'을 초청해 감사 행사를 연다.

KIA는 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앞서 '타이거즈 레전드 데이'를 개최한다.

타이거즈 왕조 주역들을 초청해 그 시절을 추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레전드 데이의 첫 번째 주인공은 김응용 전 감독이다.

김 전 감독은 18년(1983~2000년)간 타이거즈 사령탑을 맡아 9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KIA 이화원 대표이사는 이날 김 전 감독에게 감사패를, 조계현 단장

은 기념 유니폼을 전달한다. 윌리엄스 감독과 나지완은 선수단을 대표해 꽃다발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올드 유니폼(왕좌)을 입고 경기에 나서며, 경기에 앞서 김응용 전 감독과 기념 촬영을 하며 '명가 재건'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김 전 감독은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라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한다.

KIA는 이날 입장 관중에게 올드 유니폼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챔피언스 필드 로비에 1997년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전시해 포토존도 운영한다.

KIA 설진규 마케팅팀장은 "명문



구단으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올드팬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아구라는

매개를 통해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진, 팀타율 1위 보스턴 상대로 시즌 2승 도전

내일 오전 원정경기 선발 등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최강 타선을 상대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오는 21일(한국시간) 오전 8시 10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리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한다.

당초 류현진의 등판은 19일 캔자스 시티 로열스전이였다. 그러나 비로 한 경기가 연기되면서 류현진이 보스턴 원정 1차전 선발로 나서게 됐다.

토론토에게 보스턴전은 중요하다.

토론토는 최근 2연패를 당하면서 시즌 7승 9패를 기록,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4위를 달리고 있다. 류현진마저 패할 경우, 지구 최하위 추락을 걱정해야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류현진은 지난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6%이닝 4피안타 1실점(비자책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시즌 첫 승이자 메이저리그 통산 60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올해 3경기에 등판했다. 1승 1패 평균자책점 1.89를 기록 중이다. 19이닝 동안 19개의 삼진을 잡아냈고, 볼넷은 2개밖에 없었다. 피안타율은 0.211에 불과하고, WHIP이닝당



출루허용률은) 0.89로 매우 낮다.

경기를 거듭할 수록 류현진의 포심 패스트볼의 구속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구력 역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2년 연속 사이영상 후보에 오른 이유를 올해도 증명하고 있다.

류현진은 역대 보스턴과의 경기에 두 차례 등판했다. 승리 없이 1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했다. 그러나 2경기 12이닝 동안 무려 12개의 안타를 맞은 기억이 있다.

보스턴은 올해 10승 6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이다.

뉴시스

7년 뒤 "그 선수, 잘했다" 허경민 새로운 동기부여

지난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한 두산 베어스 내야수 허경민은 여러 팀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잔류를 택했다.

두산이 그에게 내린 조건은 계약기간 4년에 계약금 25억원, 연봉 40억원 등 총액 65억원. 4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3년 20억원의 선수 옵션(player option) 조항이 붙었다.

7년 최대 85억원짜리 계약이다. 4년 뒤 허경민이 다시 FA를 선언해 팀을 떠나지 않는다면 허경민은 적어도 만 37세가 되는 2027년까지 두산맨으로 남는다.

허경민은 팀의 치른 13경기에 모두 출전해 타율 0.345(55타수 19안타)로 공격 첨병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허경민이 타석에서만 빛나는 것은 아니다. 베테랑 김재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젊은 내야수들을 지휘하는 역할도 그의 몫이다.

장기계약 첫 해에는 다소 느슨해질지도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허경민에게는 남의 이야기다. FA 시즌을 시작할 때쯤이면 동기부여도 확실하다.

허경민은 "7년 뒤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새 동기부여"라면서 "두산 유니폼을 가장 오래 입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